

오륙도 칼럼

이역만리 스웨덴이 근래 부쩍 가까워졌다. 이달 중순 6·25 참전 의료지원 베테랑들과 가족, 유족 등 12명이 부산시 조정으로 부산 땅을 밟았다. 부산 철수 60년 만의 일이다. 또 동아대 부민캠퍼스에서는 스웨덴병원 사진전이 이달 말까지 열린다. 그런가 하면 유럽 최대 군사다큐 제작사인 아카빌름이 촬영팀을 꾸려 다음달 부산을 찾는다. 일주일가량 남구에 머물며 당시 치료 받은 한국인 환자들과 인터뷰를 진행한다. 참혹한 전쟁터에서 작한 사마리아인과 부산시민이 꽃 피운 감동소리는 한 시간 분량의 다큐멘터리(LET US NEVER FORGET)로 제작돼 내년 상반기 스웨덴 전역에 상영될 예정이다.

일련의 놀라운 이벤트들은 남구청과 본지, 그리고 역사에 관심이 많은 어느 의사의 드러내지 않은 수고와 집념이 있어 가능했다. 지난해 초봄 우연히 접한 '품문'에서 이 모든 일들은 비롯됐다. "6·25 때 스웨덴은 한국에 의료지원단을 파병했고 부산상고와 수산대학교에 병원을 운영하며 많은 주민들을 치료했다." 남구 토박이들 사이에서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말이다.

하지만 기록의 부재와 무관심은 참답할 수 준이었다. 그 어디에도 품문 이상의 정보는 남아있지 않았다. 불과 60년 전 우리 자신의 일임에도 스웨덴병원에 관한 모든 기록은 휘발되어 있었다.

실마리는 필자와 같은 호기심을 품은 현직 의사가 쓴 한 편의 논문을 건네받으면서 풀리기 시작했다. 딱 10년 전, '진료실의 고고학자'로 불릴 만큼 의학사에 관심이 많은 이 신경과 전문의에게 서면 롯데백화점 인근에 세워진 '스웨덴 참전기념비'가 눈에 들어왔다. '기념비의 정체'를 파고들었지만 그 역시 기록의 부재와 무관심에 맞닥뜨려야 했다. 결국 병원문을 잠시 닫고 스웨덴행 비행기를 타고 그렇게 3년의 자료 수집과 정리 끝에 28쪽 분량의 논문 '한국전쟁과 부산 스웨덴 적십자 야전병원의 의료구조 활동'이 만들어졌다.

논문을 통해 확인한 스웨덴병원이 부산 시민에게 베푼 헌신은 놀랍고 숙연했다. 병원은 1950년 9월부터 1957년 4월까지 부산에 주둔하며 200만명(결핵예방 BCG접

종자 포함) 가까운 생명을 조건 없이 품었다. 한때 부산에서는 '돈 없거나 못 고치는 병에 걸리면 서전병원(스웨덴병원)으로 가면 된다'는 말이 나돌았다. 의료진들의 헌신은 본지가 수소문 끝에 찾아낸 한국인 환자 10여 명의 증언과도 일치했다. 이들 가운데는 급성중수염으로 스웨덴병원에 3년간 입원해 마침내 새 생명을 얻은 이도

6.25 때 스웨덴이 베푼 헌신에 숙연

파병 의료진 1100명 중 58명만 생존

더 늦기 전에 기록 복원·감사 전해야

있었다.

적지 않은 의료진들이 6개월 복무를 자발적으로 수차례 연장하고 부산 철수 이후에도 한국에 남아 대민 구호활동을 이어갔다. 스웨덴 정부는 이승만 정권의 부탁으로 한국의 공공의료시스템을 복원하는 스칸디나비아 프로젝트를 추진, 수많은 의사를 양성하는데 앞장섰다. 그런가 하면 참

전 의료진들은 갈 곳 없는 전쟁고아들을 대거 입양해 본국으로 데려갔다. 훗날 이들 입양아들이 성장해 한국-스웨덴협회가 만들어졌고 지금도 양국의 훌륭한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

6·25로 압축성장한 부산은 이렇듯 스웨덴과는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이다. 그럼에도 이런 기록을 논문 한 편에만 의존해야 한다는 사실은 부끄러운 일이다. 부산시는 부산을 피란수도로 규정하고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있고 남구 역시 유엔기념공원을 중심으로 유엔평화문화특구를 지정, 전문학적인 사업비를 들여 물리적 인프라를 조성했다. 하지만 '잃어버린 기록'을 찾는 데는 너무 소홀했다는 지적을 피하기는 어렵다. 기록을 사람에 빗대면 정제성과 직결되는 기억에 해당된다. 기억 없는 육신은 존재할 수 없고 상상하기도 어렵다.

기록의 재건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보은(報恩)일 것이다. 이번 참전 의료진 초청 행사와 기획전 개최는 우리가 갚아야 할 채무에 대한 첫 번째에 해당된다. 6년 6개월



9월 30일까지 동아대학교 부민캠퍼스에서 열리는 '서전병원-스웨덴 참전용사 눈으로 본 피란수도 이야기' 사진전 포스터.

월간 1124명의 스웨덴 의료진들이 부산을 다녀갔고 현재 58명만 생존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다들 내일을 기약하기 어려운 고령들이다. 더 늦기 전에 그들에게 감사의 손길을 내밀어야 할 것이다. 시간이 없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가 없듯, 은혜를 잊은 민족에게 밝은 미래를 기대하기 어려운 법이다.

김성한 부산남구신문 편집장

신선대

<260>



■임찬수의 인생을 바꾸는 말말말 <18>

말 한마디에 상사가 달라져요

대부분의 직장인이라면 주말이 끝나는 일요일 오후가 되면 어김없이 '월요일'이 찾아올 것이다. 출근하기 싫은 이유가 과도한 업무 탓도 있었지만 상사, 동료, 부하 간의 인간관계에서 오는 마찰이 가장 큰 이유일 것이다. 일보다 더 힘든 것이 '사람'이라는 말이다. 그 중 상사와의 마찰은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직장 내에서 동료와 부하 간의 마찰은 무시하거나, 관심을 끊으면 된다지만 상사는 그럴 수가 없기 때문이다.

직장 내 상사와 부하간의 업무 지시 소통에 있어 꼭 명심해야 할 스키치를 알아보자. 먼저 당신이 상사라면 부하직원에게 일을 시킬 때 '이것 빨리해', '이것도 하나 제대로 못 해!'라며 압박지르거나 '이번 주 내로 기한안 수립해서 제출해!'라고 기한과 업무 내용만 지시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지시를 받은 직원의 입장에서는 무작정 지키는 일이 재미는커녕 동기부여가 있을 리 만무하다.

본인이 상사라면 지금부터 하는 스키치를 명심하라. 상사가 부하직원에게 일을 시킬 때 하고 싶지 않은 일도 하고 싶어지게 만드는 어엿 글자의 마법이 있다. 바로 '어떻게 하면 좋겠어?'라고 물어보는 것이다. '김 대리 이번 안건은 어떻게 하면 좋겠어?' 이번 보고서는 신제품 출시에

제일 중요한 보고서라 사장님이 이번 주까지 기한을 내라고 하는데 김 대리 자네의 생각을 듣고 싶어"라고 지시하기 보다는 의견을 물어보고 생각을 구한다는 소통의 느낌이 중요하다. 누가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니라, 자신에게 선택권이 있다는 생각이 들면 책임감과 성취감이 올라가 일이 즐겁고 능률이 올라가는 것이다. 단순하지만 큰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런 부하 입장에서 상사와의 관계를 어떻게 풀어 나가야 할까? 직장상사가 업무에 있어 나를 좋아하게 만드는 스키치 방법 중 으뜸은 바로 '중간보고 드렸습니다'이다. 중간보고는 상사와의 관계를 이어주는 생명줄과도 같다. 상사로부터 지시를 들으면 '내일 미팅시간 1시간 전까지 업무처리해서 중간보고 드렸습니다'라는 스키치를 생활해보자. 중간보고는 잘 되는 일이라면 어필의 기회가 되고, 안 되는 일은 해결책을 얻을 수 있게 만든다. 상사가 잘 아는 내용이라면 결론부터, 모르는 사항이 라면 업무의 배경과 취지, 진척도와 결론 순서로 말해야 한다. 당신은 상사에게 보고를 얼마나 자주 하는가? 상사와 마주 앉아 있기도 걸끄려운가? 지금 상사와 관계가 소원하다면 중간보고를 잘하고 있는지 점검해보라. 똑같은 일상에 조금의 노력을 더해 월요일이 기다려지는 직장인이 되어보자.

임찬수식스피치학원 원장



산다라 물 따라라

산행을 떠나요



<2017. 10.>

구분	산악회	산행일자(요일)	산행장소	연락처
대연동	연포산악회	10/15(일)	이기대 둘레길	010-3832-5971
	약천산악회	10/18(수)	전남 담양호 둘레길	010-4655-4370
	백호산악회	10/11(수)	전남 강진 가오도	010-2596-5183
	용신산악회	10/8(일)	충북 단양 옥순봉-구담봉	010-4657-7051
용호동	청산산악회	10/1(일)	문경 조령산 신선암봉	010-8008-2087
	해월산악회	10/15(일)	지리산 둘레길 5코스	010-7154-3166
	21세기산악회	10/8(일)	경북 봉화 청량산	010-7563-1943
	용호산악회	10/22(일)	고성 거류산	010-6266-8525
	용사산악회	10/29(일)	문경 도장산	010-2124-9329
	산오름회산악회	10/8(일)	전남 월출산 산성대 코스	010-7223-2277
용당동	글로벌산악회	10/15(일)	문경 주율산	010-4752-2940
	용마산악회	10/8(일)	청남대 관광	010-2692-1170
	백운산악회	10/22(일)	순천 조계산	010-2861-3177
감만동	녹색산악회	10/22(일)	문경 주율산	010-7342-3426
	오솔길산악회	10/15(일)	지리산 만복대	010-8287-1192
우암동	우남산악회	10/20(금)	제주도 한라산	010-7520-6666
	문현2동산악회	10/8(일)	시천 신시도	010-2902-8322
	원부리산악회	10/15(일)	화순 홍성산 적벽투어	010-4564-7769

* 산행일정은 산악회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독자의 소리

부산남구신문편집실 ☎ 607-4065, 4075, FAX 607-4374, 1225honey@korea.kr

독자의 소리란은 독자 여러분을 위한 공간입니다. 채택된 원고에 대해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남구열린지역아동센터 생애 첫 해외 나들이

용호동에 위치한 남구열린지역아동센터에서 정경다리 지역아동센터와 함께 지난 7월 26~28일 2박3일 일본 여행을 다녀왔다. 30명의 센터 아동들이 참여한 이번 해외나들이는 글로벌에너지(대표 윤인호), 신선가스(대표 박건철), 송승민 명예센터장, 소소수산(대표 소영희)의 후원으로 가능했다. 아래는 센터 아동이 직접 쓴 기행문.

여름방학 때 많은 후원자 분들의 도움으로 생애 일본 여행을 다녀왔다. 출발 당일 설레는 마음으로 새벽 5시 관광버스를 타고 항구로 향했다. 국제여객센터 마널에 도착해 아침으로 김밥을 먹고 8시쯤 출국심사를 마치고 배에 올라타니 팔팔팔팔 거러서 멀미가 났지만 막상 출발하고 나니 자동차를 탄 것처럼 괜찮아졌다. 1시간 정도 흘러 대마도에 잠시 정박했다가 다시 2시간 정도 더 가서야 목적지인 후쿠오카의 하카타항에 도착했다. 우리가 도착한 이곳이 진짜 외국인지 조금의 이하고 신기했다. 출국심사 때 보다 엄청 꼼꼼한 입국 심사를 마치고 항구 밖으로 나가게 되었다. 처음 느낀 것은 부산과 다르게 엄청 더운다는 것과 거리가 쓰레기 하나 없이 깨끗하다는 점이었다.

주차장에 대기하던 관광버스를 타고 우리가 맨 먼저 한 일은 밥을 먹기로 하는 것이었다. 일본 소모 선물들이 즐겨먹는다는 '짱고나베'를 먹었다. 하얀 국물의 전골 같은 음식이었는데 맛은 나를 만족했다. 점심을 먹고 하카타 포트타워에 올라가 주위 전망을 보았다. 우리나라와 비슷하다고 느껴며 다음 장소인 맥주광장으로 이동했다. 안내해 주는 직원 언니가 일본사람이지만 한국말을 아주 잘해서 너무 귀여웠다. 맥주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둘러보고 다음 장소인 쿠시다 신사로 이동했다. 이곳은 명성황후를 시해한 칼과 문서가 보관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진 곳이다. 날씨가 엄청 더워 손을 씻을 수 있는 곳에서 계속 물만 마시다가 근처 캐널시티로 옮겼다. 거대 쇼핑몰인데 입구에 들어가자 멋지고 예쁜 분수가 우리들을 반겼다. 그곳에서 1시간 정도 쇼핑을 하고 내부 식당에서 돈가스를 먹었다. 일본에서 먹은 음식 중에 가장 맛있었다. 그렇게 저녁식사를 마치고 숙소에서 샤워를 하고 간단히 휴식을 취한 후 바로 잠이 들었다.



힘들었던 첫날을 마치고 둘째 날 아침이 밝았다. 바로 일어나 관광버스를 타고 하우스텐보스로 향했다. 이곳은 일본 속의 네덜란드라고 불리는 곳이다. 예쁜 물림과 풍차로 일본이 아닌 다른 곳에 있는 느낌이었다. 이날도 너무 더워 걷기조차 힘들었지만 열심히 이곳저곳을 둘러보고 VR체험을 하고 1리터 콜라도 마셨다.

셋째 날 아침 정으로 간다는 생각이 서운했다. 아침을 숙소에서 도시락으로 해결한 후 버스를 타고 기다리던 돈키호테로 갔다. 물건을 싸게 쇼핑 할 수 있는 곳으로 지금까지 사용하고 남은 용돈으로 곤약젤리, 녹차 킷셋 등 여러 물건들을 사고 난 후 기쁜 마음으로 규슈 박물관으로 향했다. 박물관은 크고 넓었으며 옛날 물건과 여러 가지 자료들이 전시되어 있었다. 이후 무빙워크를 이용해 편하게 다음 장소인 태재부 천만공으로 이동했다. 이곳은 학문의 신을 모시고 있다는 곳이다. 입구에 공부를 잘하게 해준다는 소동상의 빨을 만진 뒤 신사를 구경했다. 약간 시장 같은 분위기였다. 일본에서 출국 수속을 하고 다시 배를 탔다. 일본에서 하루만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동안 어느새 부산에 도착했다. 집에 도착해 엄마를 보니 반가운 마음과 피곤함이 동시에 느껴졌다. 생애 첫 3일간의 해외여행이 그렇게 마무리됐다.

신경은

강겨울의 7월22리피 2017 @ 캘리그래퍼(Calligrapher)

작가 정신은 창작의 나침판



만약 누군가가 손글씨를 쓰고 있는 귀하게 "당신은 누구시죠?"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이 단순하고 자명한 질문에 "나는 작가(캘리그래퍼)예요"라고 대답하지 못하고, 머뭇거리거나 주저한다면 스스로 먼저 자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마

치 시를 쓰는 시인에게 당신은 시인이냐고 묻는 것과 같습니다. 캘리그래퍼 작업을 하면서 자신이 작가라는 생각을 가지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실력 이제 시작하는 초보자나, 그냥 취미로 배우는 분들에게도 '작가'라는 관점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작가적 정제

성이 소위 말하는 창작의 원천이자 예술로 들어가는 '자존심'이기 때문입니다.

창작에서 '작가적 정신'이 요구되는 또 다른 이유는 주변 환경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방식으로 주제적인 감정 표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령 맑은 쉬우나 글로 표현하기 어려운 것은 생각의 속도가 글의 속도를 넘어서기 때문인데, 이 과정에서 '작가적 관점'은 환경에 따라 시시각각 변하는 미묘한 감정들을 처음대로 담을 수 있게 일깨워 줍니다.

좋은 캘리그래퍼가 될 수 있는 가장 손쉽고도, 빠른 길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작가 정신'은 예술적 안목을 성장시키고, 치열한 창작의 세계로 시선을 돌리게 만드는 나침판이기 때문입니다. 캘리그래피 아티스트 겸 인터넷신문 수영넷(suyeong.net) 대표

우리지역 일자리 알림판

<2017. 9. 20. 기준>

회사명	근무지	모집직종	모집인원	모집기간	임금조건	연락처
아이비치과의원	대연동	치과위생사	1명	17. 09. 20~채용시까지	월 170만원	051-506-2875
동주프러자	대연동	삼점판매원	2명	17. 09. 20~채용시까지	연봉 2,100만원	051-610-0780
세영식품(주)	대연동	주방보조원(부경대 기숙사)	2명	17. 09. 20~채용시까지	시급 6,470원	070-7126-4601
다들 아울렛	용당동	회계사무원	1명	17. 09. 20~채용시까지	월급 150만원	051-628-2200 010-8214-1310
		웹 디자이너	1명	17. 09. 20~채용시까지	월급 170만원	
		삼점 판매원	6명	17. 09. 20~채용시까지	연봉 2,400만원	
		카운터 캐셔	2명	17. 09. 20~채용시까지	연봉 2,400만원	
썬모닝	문현동	총무 및 일반 사무원	1명	17. 09. 20~채용시까지	월급 157만원	070-4651-1638
썬아워를 한국 웰치유무점	용당동	단체급식보조원	1명	17. 09. 19~채용시까지	시급 6,470원	010-4878-6705
아시아통상	감만동	단순종사원	1명	17. 09. 19~채용시까지	월 180만원	051-634-2339

* 대한민국 모든 일자리 정보(worknet)와 연계
* 남구 취업정보센터 ☎607-4347~8 Fax. 607-4349

■독자 투고

대형서점 견본형 책자 비치들

주간지와 월간지를 사러 자주 대형서점에 들른다. 그런데 갈 때 마다 기분을 우울하게 하는 것은 내용을 볼 수 없도록 테이프를 책에 얹어 버리는 것이다. 이러니 내용을 전혀 모든 채 걸쭉지에 적힌 제목만 보고 골라야 하는 셈이다.

큰 대형서점에 많은 고객들이 찾아오는데 책 한편 훼손되는 것을 염려해 봉해 놓고 걸표지만 보고 책을 고르게 하는 것이 과연 고객에 대한 예의이고 서비스인지 묻고 싶다. 반면 중소서점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

는다. 고객들이 책의 내용까지 보고 자신이 필요로 하는 내용이 있는 책을 선택할 수 있다.

아무래도 대형서점에 많은 고객이 방문해 책을 사기 마련이므로 주월간지 한편 정도는 고객들을 위해 봉사하는 셈치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테이프를 붙이지 말았으면 한다. 대형서점들은 장사와 영리에만 집착하지 말고 고객들에 대한 최소한의 서비스도 고려했으면 좋겠다.

박옥희(용호동 주민)

■무료 영화상영

장 소	영화제목	상영일시	비 고
남구도서관	미스 페레그리나 이상한 아이들의 집	9월 27일(수) 19:00	선착순 ☎607-6575
	비긴어게인	9월 27일(수) 19:00	
대동굴문화센터	검사의전	10월 13일(금) 15:00	선착순 140명 ☎607-3380~3382
	어바웃 타임	10월 25일(수) 19:00	

부산남구신문

1996년 1월 1일 창간

발행처 부산광역시 남구 / 편집주간 김 성 한

부산광역시 남구 못골로 19(대연동)
남구청 대표전화(051)607-4000 편집실(051)607-4065, 4075 / FAX(051)607-4374

부산광역시 남구 홈페이지 : http://www.bsnangju.go.kr

인쇄처 부산일보사 / 월간 <비밀매물>

본지는 신문윤리강령과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